

장성군, 청년자립·결혼 지원... '군민 5만' 회복에 올인

'연어프로젝트' 추진

4개 중점과제, 89개 정책과제 발굴
'찾아가는 전입 창구' 116명 성과

장성군이 5만 군민 회복을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연어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장성군은 2017년 7월 장성군은 연어가 돌아오듯이 사람도 돌아오게 만들자는 뜻의 '연어프로젝트 추진 종합대책 보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17개 실과소에서 유동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보육, 정주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78개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연어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7년에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했고, 2018년에는 인구가 다소 감소했지만 주민등록인구 증감률로 전라남도 내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9년 올해는 '연어프로젝트'의 판을 새로 짰다. ▲새로운 인구유입 흐름



상무대간부 전입장려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하는 모습.

형성 ▲청년의 자립·결혼·육아 지원 ▲세대·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속 창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4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017년보다 11개 늘어난 8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군은 89개의 정책과제로 본격적인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 중에는 이미 추진을 시작해 성과를 거둔 시책도 있다. '찾아가는 전입 신고창구' 운영이 그것이다. 장성군은 기존에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던 영내 거주 상무대 직업군인들의 전입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법령 검토, 행정안전부 질의 등 꼼꼼한 사전절차를 거쳐, 상무대 장기교육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실시했다. 올해 5회의 운영으로 116명의 새로운 장성군민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성군은 앞으로 장기교육생 입교시기에 맞춰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10월 '장성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

공기관장려금 지원 등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장성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대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기업체 직원의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결혼한 커플 중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49세 이하 주민으로서 결혼 후 부부가 계속하여 장성에서 거주할 경우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시 100만원을 주고 이후 2년간 매년 10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지급된다.

결혼 이주 등으로 장성에 거주하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도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장성에 주소를 두면 '국적취득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밖에도 전입 인원이 많은 유관기관이나 기업체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해 갈 계획이다.

장성군은 트렌디한 관광명소로 잠재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황룡강'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로 2년 연속 백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대표 꽃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출렁다리로 걷는 재미를 더한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이면 3천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인공조림지인 '축령산'의 맑은 공기를 찾는 방문객들의 끊임없는 발길로 장성은 활력이 넘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빨라지는 인구감소의 시계만큼이나 속도감 있는 인구시책이 절실하다"며 "연어가 미래를 위해 과거를 거슬러 가듯, 지나온 길을 거울삼아 멀리 내다보는 인구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성군, 3200㎡ 규모 '주말 텃밭농장' 개장

장성군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가족화합을 위한 '주말 텃밭농장'을 19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바쁜 일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군민에게 가족 친화의 시간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말 텃밭농장'을 운영한다.

텃밭농장은 장성읍 영천주공아파트 인근 3,200㎡ 규모로, 세대 당 16.5㎡씩 130여 가족에게 분양이 완료됐다.

군은 텃밭농장에 참여한 초보 농사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상추, 고추, 가지, 옥수수 등의 작물을 선정하여 무료로 모종을 제공하며, 재배를 위한 기술력도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어르신들에게 텃밭농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노후생활을 즐기고 노년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성=봉채영 기자

광주시, 중·대형 건설현장 실태점검 나서

광주광역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설업 법정사항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2분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4개 12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 건설현장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체불임금, 건설기계에 대

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대여금 지급 보증 발급, 지역주민 고용, 지역 장비·생산자재의 구매사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도 적극 홍보한다.

아울러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운영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홍보하는 등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2일(월)
음력 : 3월 18일

수도권 날씨
12 ~ 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9 | 해질 / 19:1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 10억 확보... 3만가구에 적용
일반가구 대상 자율설치 홍보 실시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과 협의한 결과, 최근 22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은 '화재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정이 사는 세대가 해당된다. 올해는 보급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 바로 위의 저소득층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만 5천 가구에 무상 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조례 제정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예산 10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두 배

모인 화재취약계층 3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또 설·추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2개 시군 일제 캠페인, 마을 이·통장 방문 홍보, 다중이용시설 트리아트 및 랩핑 홍보, 지역 안전체험행사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 가구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2년~2017년) 주택화재 평균 사망자는 14명이다. 반면 2018년 사망자는 7명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남에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사례가 25건으로 조사돼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봉채영 기자

내달 지역전문 임업인 양성과정 운영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교육생 모집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는 지역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귀산촌아카데미, 산악초 재배교육, 2개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 임업 분야 교육을 이수하면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하나인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귀산촌아카데미에선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임업인 양성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한다. 예비 귀산촌인, 신규 임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기초

지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산악초 재배교육은 올해 신설된 교육 과정이다.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전남지역 임업인들의 교육 수요가 많아 신설됐다.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귀산촌인이나 신규 임업인 등 임업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로 각각 30명이다.

교육비는 5만 원이다. 신청서 등 '2019년 임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성평등위원 12명 모집 광주시, 29일부터 5일간

광주광역시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12명을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광주시 성평등위원회는 시민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위촉직 위원 12명은 공모하고 4명은 지역 여성단체에서 기관 추천을 받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다. 위원들은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사업위탁에 대한 심의 등 양성평등 실현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봉채영 기자